전주 고유 공예적 감수성 알린다

전주문화재단, 2년 연속 '공예주간' 선정… 공예문화 확산 박차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2025 공예주간(Korea Craft Week 2025)'에 2년 연속 선정됐다.

9일 재단에 따르면 공예주간은 '손으로 빚어내는 예술, 생활 속에서 피어나는 공예문화'를 주제로 매년 전국 단위에서 열리는 공예문화 축제다.

공예 전시, 체험, 마켓, 교육, 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재조명한다. 올해는 5월 16~25일 10일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다.

전주는 '전주공예마을여정: 유람기'를 주제로 6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예마을 공방유람 △공예유람 마켓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공예체험 △공예유람 이벤트 △공예 유람 스팟 △공예작가 발굴 등이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공방 탐방 프로그램과 공예 굿즈 마켓,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은 공예를 관람 대상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향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문화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전주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이자, 생활 속 공예문화가 뿌리내린 곳"이라며 "이번 공예주간을 통해 전주 고유의 공예적 감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일상 속에서 공예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2025 공예주간 포스터

송윤경 작가 첫 개인전 '그리고 봄'

13일까지 서학동 사진미술관서 민화전 개최

오는 13일까지 서학동사진미술관에서 송윤경 작가의 첫 개인전인 '그리고 봄' 민화展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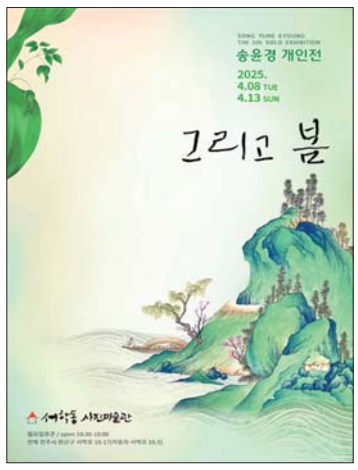
9일 작가에 따르면 이번 전시를 통해 옛 그림의 상서로운 뜻들을 알아가며 보이는 것에 담긴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를 채우며, 행운과 행복에 이르는 마음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했다.

전시 시간은 10시 30분부터 18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작가는 "지난해, 우연한 기회에 전주를 찾았다가 서학동사진미술관의 한옥구조와 정원, 마당, 서학동예술마을의 골목이 주는 아기자기함에 반해 전주에서의 전시를 계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오늘날 민화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더불어 현대적으로 발전 확장되며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민화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뛰어난 실력의 민화 작가들이 민화의 예술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따라 빠르고 폭넓게 대중들에게 호감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장생도, 화조도, 모란도, 화접도 등의 전통적 민화와, 행복해지기 10분전, 누군가를 맞이하는 마음, My Garden, 행운 가득 등 작가의 개성과 현대적 해석이 돋보이는 작품 27점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송윤경 작가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조선민화박물관, (사)한국민화협회, 홍익아트, (사)한국전통민화협회 등에서 주최한 공모전에서 장려상, 우수상, 특선 등을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청춘예찬 젊은판소리' 소리꾼 공모

30일까지 모집… 블라인드 심사로 각 바탕별 5명 선정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는 오는 30일까지 '청춘예찬 젊은판소리' 무대에 오를 젊은 소리꾼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청춘예찬 젊은판소리'는 실력 있는 젊은 소리꾼들을 발굴하고 차세대 소리꾼들의 무대 경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소리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판소리 다섯바탕 각 바탕별(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궁가)로 1명씩 총 5인의 소리꾼을 모집한다.

참가 자격은 1989년부터 2006년생으로 60분 이상의 소리가 가능하고, 소리축제 일정에 참여가 가능한 소리꾼이라면 누구든 지원이 가능하다. 공연은 바탕별 60분씩 연창하는 형식으로 해설이 있는 판소리 공연 형태로 진행된다.

오는 30일 오후 3시까지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와 최소 15분 이상 30분 이내로 녹음된 소리녹음 음원 파일을 구글폼(https://bit.ly/4JHU7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해당 음원 파일을 토대로 판소리 전문가 3인의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5월 9일 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리축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종 선정된 소리꾼 5명에게는 출연료와 공연을 위한 장소 및 장비, 홍보 등이 지원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소리 판-완창무대' 19일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예음헌에서 2025년 판소리마당 〈소리 판-완창무대〉의 첫 공연으로 소리꾼 양은주의 '미산제 수궁가' 완창 무대를 선보인다.

소리 판-완창무대는 완창이라는 전통 형식을 통해 판소리 다섯 바탕의 서사 구조와 음악적 깊이를 고스란히 전달함으로써, 판소리의 원형성과 예술적 특성을 온전히 무대에 담아내고자 마련된 기획공연이다.

소리꾼 양은주는 제42회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자이자, 현재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의 지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미산제 수궁가' 전 바탕을 완창, 동편제의 힘과 서편제의 섬세함이 조화된 미산제 특유의 균형 잡힌 소리로 수궁가의 해학과 풍자를 깊이 있게 담아내어 관객에게 전할 예정이다.

고수는 전국고수대회 대통령상의 조용안(현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이 맡으며, 예약은 전화,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대표 문화관광 상설프로그램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이 오는 12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광한루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남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공연

여름 혹서기 · 우천 시 휴연

남원시 대표 문화관광 상설프로그램으로 2007년부터 18년간 이어온 신관사또 부임행차(이하 부임행차) 공연이 오는 12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광한루원 일원에서 진행되며, 여름 혹서기(7월~8월) 및 우천시 프로그램을 휴연한다.

부임행차 공연은 남원의 대표 콘텐츠인 춘향전을 퓨전으로 각색한 것으로, 취타대를 시작으로 사또와 군관, 익살맞은 육방(이방), 화려한 기생 등 다양한 등장인물과 화려한 복식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선사, 사랑의 광장에서 출발해 춘향교 삼거리, 광한루원 일원에서 진행하며, 사또의 위풍당당한 행렬과 관광객과의 유쾌한 교감이 어우러져 익숙함을 넘어선 새로운 춘향전을 다시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광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관광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까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touraz.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기업은 서류 심사를 거쳐 총 15개 내외의 관광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자를 제외한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2명 이상인 관광 관련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턴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최대 2개월간 월 14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로 한정하지 않고, 관광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기업과 인턴 간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턴을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및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센터 전화(063-230-4215)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